

판소리 발전 기여...목포 출신 박계향 명창 동리대상



국내외의 주요 공연 참여하며 세계에 판소리 알려 판소리 불모지 인천에 보존회 개설...후학 양성 판소리 정립 신재효 기려 제정...11월6일 시상

목포 출신 박계향(본명 박길연) 명창이 판소리계에서 권위 있는 상 '동리대상'을 받았다. 제30회 동리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헌)는 22일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박 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명창은 1941년 7월 목포에서 태어났다. 9세 때 우연히 임방울 단체 공연으로 '춘향가'를 보고 난 뒤 장월중선 선생의 국악원 마루에 숨어들어 '도독 공부'로 소리에 입문했다. 16살 때 보성 정응민 선생 문하생으로 정

식 소리 공부를 하며 춘향가와 심정가를 사받았다. 이후 강도근 명창으로부터 적벽가와 수궁가를, 박초월 선생에게 수궁가를, 김소희 선생에게 흥보가를 사받으며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익혔다. 젊은 시절 임춘앵 국극단과 김연수 창극단 소속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우리국악단에 입단해 박동진 선생의 지도로 명성을 쌓기도 했다. 42세부터 20년간 서울 인사동에 판소리 학원을 열어 후학지도에 힘썼으며, 2012년부터는 판소리 불모지였던 인천에서 판

소리 전승과 보급을 위해 학원, 판소리보존회 인천지부 등을 개설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1987년 제13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해 명창 반열에 오르고, 1998년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술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내외의 주요 공연에 참가해 판소리를 세계에 널리 알렸고, 판소리 완창 발표회를 수차례 열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해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법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박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판소리 한마당 공연도 같이 열릴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나라사랑공제회, 보훈청에 보훈가족 후원 상품권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성현)이 최근 나라사랑공제회(이사장 장재욱)에서 후원한 은누리상품권(300만원 상당) 전달식을 열었다. 상품권은 태풍·수해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침수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재욱 이사장은 "금년 여름에 집중된 태풍과 수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당한 보훈가족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보훈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고흥서 생명 살린 시민영웅 7명 '119 의인상'

소방청은 화재와 수해 등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들의 생명을 구한 시민 7명에게 '119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문기학(55)·신복수(59)·이은수(57)씨는 지난 7월10일 전남 고흥군의 운호21병원에서 큰불이 나자 본인들 소유의 이삿짐 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 등을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했다. 고대권(46)·박성안(35)·손성모(37)·최봉석(44)씨는 지난달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해 전남 구례군 일대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자 가지고 있던 보트로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다. 소방청은 119 의인상과 별도로 인명구조에 기여한 경찰관 고진형 경장과 의용소방



최봉석(왼쪽)씨와 손성모씨. 대원 박춘수 씨 등 2명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고진형 경장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떠내려가는 어린이를 구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고, 의용소방대원 박춘수 씨는 고흥 운호21병원 화재 당시 해당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환자 탈출을 도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개그맨 박휘순 11월 결혼...예비 신부가 SNS로 알려

개그맨 박휘순(43)이 오는 11월 결혼한다. 박휘순은 22일 "힘든 시기에 제 옆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해준 그녀를 이제 내가 평생 지키고 싶다"며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때에 알린 결혼 소식임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여름,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사랑이 시작됐다"며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예비 신부로 인해 내 삶과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휘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예

비 신부가 올린 글이 공개되면서 결혼 소식이 알려졌다. 자신을 "휘순 오빠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그는 "결백기와 달리 따뜻하고 배려 깊고 나를 생각해주는 모습에 (박휘순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철뉴스

한국미술협회 광주동구지회, 동구청에 '노송도' 기증



(사)한국미술협회 광주동구지회(지회장 박수봉)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광주시 동구청에 4000만원 상당의 '노송도' 대작(270cm×150cm)을 기증했다. 박수봉 지회장은 "'노송도'는 사계절 변치않는 푸르름으로 군자의 덕과 장수를 상징한다"며 "동구청에 전시해 구청방문객과 함께 공유하는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55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0 SBS 뉴스 30 애니걸러리
⑪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00 쌤, 마이웨이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2 55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③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남도에 가요 스페셜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오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05 집중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특선다큐 지구의 지배자, 영장류	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0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스튜디오 K		
⑫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왕스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세미와 매직큐브	<아시아 핫플레이스 -캠보디아 시간 여행자>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동쪽으로 튀어 3부 바다 위의 무림고수>
08:30 고고다! 우리 동네 공룡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위인극장 리턴즈	16:50 해오와 해오	22:45 극한직업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20 아웅명명 귀여워2	23:5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씨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음 8월 7일 己巳)

<p>36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48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60년생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72년생 평균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알라. 84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껍질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96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행운의 숫자 : 43, 52</p>	<p>42년생 초기 대응에 부실하다면 판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54년생 적극성을 띠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 된다. 66년생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한다. 78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90년생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02년생 중기는 끝났을 때 짜야하고 숨은 필 때 걸려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69</p>
<p>37년생 조금씩 하지 않으면 길운을 맞으리라. 49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61년생 자극을 받을 일이 생기겠다. 73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질 것이다. 85년생 의도와 용기는 훌륭하나 상대방의 반응이 신통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97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41, 83</p>	<p>31년생 갈탄 기운이 모이고 있으니 순조로운 것이다. 43년생 밖으로 내 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 들이는 것이 낫다. 55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67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79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니 인연이 바쁘다. 91년생 감당 할 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75</p>
<p>38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옳이 하도다. 50년생 서로가 피장파장이니 의미는 없다. 62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74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86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다. 98년생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72, 86</p>	<p>32년생 예상 했던 이로부터 소식이 오리라. 44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56년생 서두르다만 상대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음을 알라. 68년생 지나치다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다. 80년생 다양한 변수가 보인다. 92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절대대로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3, 53</p>
<p>39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희망찬 미래를 기약 하리라. 63년생 치밀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을 당한다. 75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후이니라. 87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99년생 낙수물론 바위도 뚫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97</p>	<p>33년생 조짐이 보이던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45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57년생 드디어 종결 짓게 된다. 69년생 길짐이 보인다. 81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망에 불과하니 크게 기대 하지는 말라. 93년생 조짐의 시기를 놓친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8, 95</p>
<p>40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니 기쁘게 파종하자. 52년생 가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을 낳는다. 64년생 오랫동안 학구고대하여 왔던 바가 찾아 올 것이니라. 76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88년생 감지된 실행을 무시한다면 큰일로 비화 될 것이니라. 00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행운의 숫자 : 38, 57</p>	<p>34년생 놔두면 다 쓰일 데가 있을 것이다. 46년생 훗날을 도모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니라. 58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조심하자. 70년생 실현 가능한 원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82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갖지 않으면 장애에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 94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9, 81</p>
<p>41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53년생 상호 간에 배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5년생 관찮다. 77년생 철저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89년생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갈 것이다. 01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생산적이니라. 행운의 숫자 : 01, 78</p>	<p>35년생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47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다. 59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자. 71년생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83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95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84</p>